눈길 끄는 톡·톡·행·정

무안 향토맛집 육성 '맞춤 지원'

군, 업체 6곳 메뉴개발·위생관리 등…8월 중 신메뉴 품평회

무안군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토 맛집 육성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컨설팅은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침체돼있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실시됐으며, 군은 무안군 외식업지부의 추천을 받아 대상 업체 6곳을 확정했다.

올해 컨설팅은 부담없는 가격에 누구나 선호하는 음식과 계절 음식 보다는 접근 용이성과 대중성을 갖춘 지역 농산물 활용 음식 개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사업대상자는 메뉴개발, 위생관리, 판매전략, 고객서비스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의 1:1 현장코칭을 받게 되며, 컨설턴트는 티비케이외식창업컨설팅 김태수 대표와 조리의 명인 구본길씨가 맡았다.

현장코칭이 마무리되면 대상 업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전수 받은 메뉴들에 대한 평가회를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김향금 무안군 농촌지원과장은 "최근 대면 축제와 관광이 재개됨에 따라 맛집 방문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번 컨설팅이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음식관광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 컨설팅 중인 음식 차림.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신안 친환경 해충방제 '일상 맞춤'

군, 읍·면 방역용 소독기 순회 점검…모기 방제 기구 2300세대 설치 예정

신안군이 코로나19 방역 체계 변경에 따라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해충방제 활동에 적극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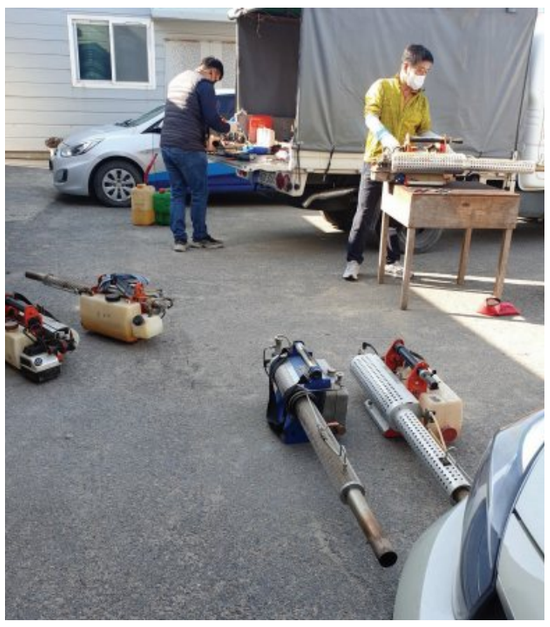
신안군은 여름철 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용 소독기 사전 점검 활동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읍·면 방역용 소독기 일제 순회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군은 읍·면의 자율방역단이 관리하고 있는 방역용 소독기 수리 및 부품 교체, 노후 방역기 폐기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2021년 220여대, 2022년 220여대를 수리·점검했다.

5월 중순 부터는 친환경 모기 방제 기구인 '모스키토 존'을 2300세대에 설치할 계획이다. 모스키토 존은 동절기 정화조에서 서식하는 모기 유충을 사전 차단하는 정화조 모기 유출입 방지팬으로 모기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군 관계자는 "하수구 재정비, 정화조 모스키토 존 설치 등 모기 서식지를 구제하는 방역 활동을 통해 친환경적인 방역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계절 꽃 피는 신안군, 감염병이 없는 맑고 깨끗한 청정 신안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3년 '눈부신 성장'

3924억 발행 '10배 증가'…93% 판매 '군 단위 전국 최대'

해남사랑상품권이 발행 3년 만에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로 성장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2019년 4월, 170억원 규모로 발행을 시작한 해남사랑상품권은 3년만인 2021년에는 1750억원 규모까지 증가했다.

만 3년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총 3924억원 발행, 3660억원 판매를 보이며 전국 군 단위 최대 규모 지역상품권으로 성장했다.

발행 및 판매액뿐만 아니라 환전액도 3437억원, 93.9%의 환전율을 기록하며 상품권 가맹점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가 경제적 혜택을 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올해 1450억원 규모로 상품권을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해남사랑상품권은 관내·관외 거주자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나 사용은 해남군 관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만 가능하다.

상품권의 구입은 해남군이 지정한 35개 금융기관(관내 농·축·수협, 신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서 가능하다.

2021년 1월부터는 카드상품권을 출시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항 물동량 소폭 줄었다

1분기 553만8000t

올해 1분기 목포항 물동량이 선박과 자동차 수출 감소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 감소한 553만8000t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1분기 목포항만 전체 물동량은 553만8000t으로, 이 중 연안화물은 전체 물동량의 73%(404만2000t)를 차지했다. 나머지 수출입 화물은 27%(149만6000t)를 기록했다.

연안화물 가운데 목포~제주간 농산물과 생활물은 수송 수요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3만4000t 대비 3.8% 증가한 335만7000t이 처리됐다.

시멘트와 유류 또한 전년 대비 각각 13.7%와 4.7% 늘어난 23만1000t과 32만5000t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선용 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철재 물동량은 선박 건조 기간 장기화에 따른 선박블럭 생산량의 일시적인 감소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103만8000t) 대비 27.7% 감소한 75만t을 기록했다.

주요 수출입 화물인 자동차 물동량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 등으로 차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어 수출량은 크게 감소했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수출 자동차 물동량은 반도체 수급 여건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선 기자재 물동량도 조선수주량 호조세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향후 관련 업계와 물동량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진도군, 베이비 마사지 교실

17일까지 참가자 모집

진도군이 생후 3개월~10개월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베이비 마사지 교실을 운영한다.

'쑥쑥 크는 오감발달 베이비 마사지 교실'은 아기와 신체 접촉을 통한 교감 형성과 면역력 향상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베이비 마사지 ▲천연 베이비 오일·샴푸 만들기 ▲영유아 영양교육 ▲영유아 응급상황대처 등을 교육한다.

참가 희망자는 17일까지 보건소 1층 모자보건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어린이날 '목포해상W쇼' 신작 만나세요

5일 사진찍기·버블쇼 등 이벤트…평화광장서 올 첫 공연

목포시가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을 맞아 오는 5일 오후 8시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 해상무대에서 '2022 목포해상W쇼 신규작품 쇼케이스'를 개최한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신규 뮤지컬 작품과 함께 인기캐릭터 인형탈과 사진찍기, 버블쇼 등 어린이날 기념 특별이벤트를 선보인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이며 시민과 관광객의 큰 호응을 얻은 목포해상W쇼〈사진〉는 올해 구성과 연출 등을 변경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고 퓨전국악, K팝 등을 추가하는 등 오락성과 대중성을 높인 신규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공연장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람객 안전을 위해 해상데크 관람석 입장객 인원을 1300명으로 제한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답답한 시간을 보내온 시민과 관광객에게 자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쇼케이스 공연을 준비했다"며 "올해 목포해상W쇼는 안전한 공연장 환경을 조성하고, 프로그램 조정을 마친 뒤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